

광주·전남서 2명 추가확진...위생수칙 소홀히 해선 안돼

누적확진자 광주 17명·전남 5명...접촉자·동선파악 나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경계 강화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간헐적으로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위생수칙 지키기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에 거주하는 59세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딸의 집을 방문했으며,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딸은 지난 6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 집에 머물다 지난 8일 광주로 돌아온 A씨는 10일부터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지난 16일 오전 11시께 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17일 오전 양성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 여성을 전남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 입원 조치하고, CC-TV와 신음카

드, GPS 내역 등을 토대로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15일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이를 만에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도 17명으로 늘었다.

이날 전남 화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나왔다. 광주 13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63세 남성으로, 전남에서는 5번째 환자다.

지난 3일 확진자 접촉 통보를 받고 자가 격리를 해오다 해제 하루 전인 지난 16일 화순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목 잠김 등 의심증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같은 증상으로 지난 12일 화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한 흉부엑스선 검사 및 체온 측정에서는 정상으로 판정된 바 있다. 이 남성은 자가격리 기간 부인과 아들이 광주 어머니 집에 거주해 별도의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이 자가격리 기간이던 지난 12일 알레르기 비염 치료 차 화순 소재 병원·약국을 임의로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의뢰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인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재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8320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6일 0시부터 8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하루 증가 폭은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5일 76명, 16일 74명이었다.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총 82명이다.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264명이 늘어 총 1401명이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김형호 기자 khh@



17일 광주시 광주 북구 일곡병원 선별진료소에서 북구보건소 방역팀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

116만명에 1년간 연 30만~120만원 인하

올해 말까지 연매출이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116만명에 대해 부가세를 연평균 30만~120만원 인하해준다.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30~60% 감면해준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우 의원,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민생당 유성업 의원이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0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줄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전자전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 대책의 시행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연간 71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정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을 기존의 15~30%에서 2배로 늘어난

30~60%를 적용해줄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로 인해 17만명이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 감소 규모는 20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 외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나머지 조세감면 대책들은 정부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준다. 3~6월 6개월간 체크카드·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15~40%→30~80%)로 확대한다. 또 3~6월에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해주고, 기업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개학 연기 학교 감염위험 높고 학생 전파 우려 때문

의료계·방역당국 적극 권고 학부모도 다수 찬성...방학 짧아질 듯

정부가 17일 개학을 2주일 더 미뤄 4월 개학을 확정할 이유는 개학 시 학교 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할 수 있는 데다가 학생이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의료계와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개학 연기 권고와 학부모 다수의 찬성 의견도 정부가 세 번째로 개학을 연기한 배경이 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

서 “개학이나 개원을 하게 될 때 염려되는 점은, 물론 아동·학생들 간의 감염”이라며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은 함께 생활하면서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경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휴원을 두고 보건당국과 교육부 입장이 달랐던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와 달리, 이런 배경에서 이번에는 보건당국도 학교 휴업 연장을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역시 학생 집

단감염뿐 아니라 학교에서 시작한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확산할 것을 우려하며 개학 연기에 힘을 실어줬다.

개학이 세 번째 연기되면서 각급 학교의 학사일정 전면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업일수는 물론 수업시수(이수단위)도 감축될 수밖에 없다.

당장 중·고교는 4월 개학 시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3월 중순이라도 개학했다면 그래도 한 달 정도 배운 것을 가지고 4월 말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4월 초에 학기를 시작하면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해 4월 말 시험은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은 지필평가나 수행평가로 대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개학 연기로 여름방학이 2주 정도로 짧아질 가능성이 크다. 개학이 워낙 늦어 학교들이 방학을 줄이지 않고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행하기 위한 수업일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짧아지는 것 또한 부담이다. 자기소개서 작성 등 수시준비를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 강도 높은 방역시스템 전국에 공동 적용된다

3주 격리후 해제에서 최종격리 전 반드시 재검사로 전환

정부가 광주시의 강도 높은 방역 시스템을 전국 자치단체에 공동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3주간(의료기관 2주, 집이나 시설 1주) 격리한 뒤 해제했으나, 광주시는 마지막 추가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아야만 격리 해제를 등 해제 기준을 대폭 강화해 ‘모범적·안정적 방역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

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이날 ‘코로나19 대응 지침’(지방자치단체용) 7·3판에서 확진 환자를 유증상과 무증상으로 나눠 격리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지침에선 무증상 확진자에 대해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7일째 유전자 검사(PCR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증상이 나타난 ‘유증상’ 확진자는 임상 기준과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격리 해

제될 수 있도록 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열이 없어지는 등 상태가 호전돼야 하고,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검사를 시행해 모두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앞서 지난 2일 발표한 지침(7판)에선 발병일로부터 3주간 집이나 시설에서 격리한 뒤 격리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지침에서는 최종 격리해제는 PCR 검사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방역당국의 이번 강화조치는 광주시의 방역 시스템을 참고해 적용한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신천지 신도이자 광주 3번 확진자를 병원치료 후 자택격리 대신 생활치료시설에 격리했으며, 최종 격리해제에 앞서 마지막 재검사를 통해 양성상태를 확인하고 재입원 조치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광주시가 시행중인)격리 해제 전 신격리를 하는 등의 조치는 ‘전반을 잡아 큰 선불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는 논리로, 타 시도에서는 광주의 사례를 반영하는 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금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공장용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사위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 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돈되는 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 봄.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3월 19일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2020년 6월 11일
매주 목요일 주간10:00~12:00 야간 7:00~9:00
-수 강 료: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2020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30기)	광주교육대학교(21기)
모집 / 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20. 3. 6(금) 09:10 (중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20. 3. 7(토) 09:10 (고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20. 3. 6(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20. 3. 7(토) 14:10 (고급반)
모집 기간	2020. 1. 23(목) ~ 3. 7(토)	
수업 기간	2020. 3. 6(금) ~ 2020. 8.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 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후반 14:10 ~ 18:00	
수료 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 학교 (방과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법) 취득 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예금주 : 광주여대) ·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예금주 : 광주교대) · 국민은행 : 773901-01-476749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의 :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병공) : 010-3614-4160	· 문의 : 062)520-4243 · 지도교수(선병공) :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